



(5) 유제우 前 복싱세계챔피언

■ 전라도 역사 이야기

-금산과 진산-

“76년 와지마전 의문의 패배는 中情 약물공작”

30년 전인 1976년 2월 17일 밤 8시, 온 국민은 TV를 주시하고 있었다.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챔피언 유제우와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 간의 리턴매치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유씨의 승리를 예상했다. 이미 유씨가 와지마를 일방적으로 물아 KO로 이겨 웹피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내내 유제우는 무기력했다. 15라운드 내내 주먹한번 제대로 뺏지 못한채 패배했다. 그 한스런 패배를 놓고 항간에는 ‘약물중독설’과 ‘매수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패배 이후 30년만에 그가 처음으로 당시의 일을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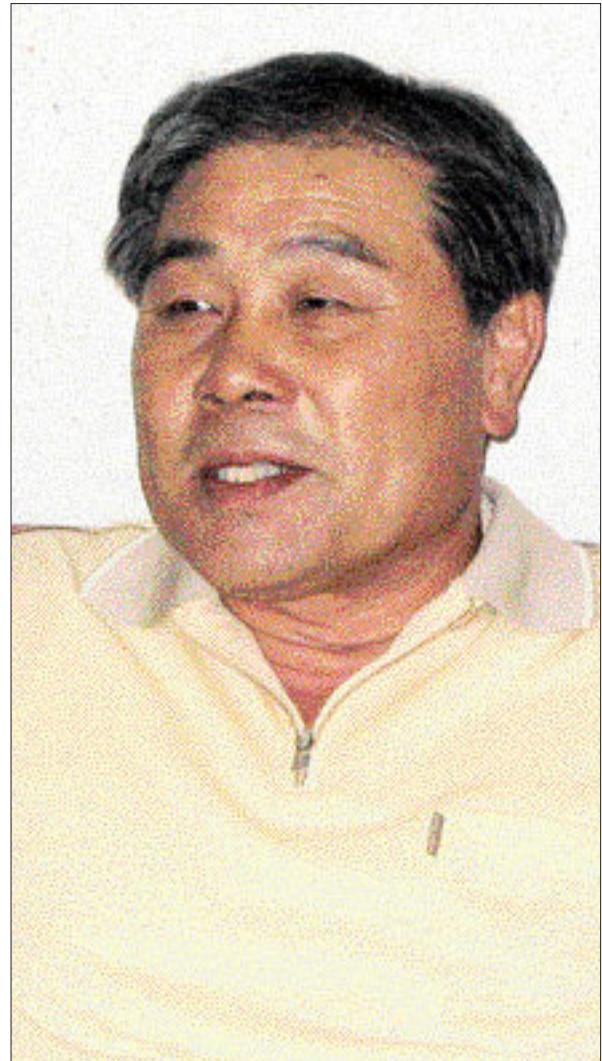
“1981년엔 우연히 알게 된 목포 출신 후배 S가 찾아와 ‘형님 그날 팔기 드셨지요. 그 속에 약을 넣었다고 하던데요’라고 한 말을 듣고 그 날의 억울한 패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렸어요”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태양권투체육관에서 유제우(60)씨를 만났다. 악수하는 순간의 힘이 대단했다. 주변은 둘처럼 딱딱했다. 운동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유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일한다는 S로부터 76년 패배 이후 불거진 ‘약물중독설’의 내막을 듣고 바로 청와대·대

‘아침에 먹은 딸기에 약물 넣어’

정보기관 근무한 후배가 귀띔



유제우 선수가 75년 6월 일본에서 와지마(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주니어 미들급 세계챔피언에 오른 뒤 귀국, 환영 카페레이드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고흥에서 태어난 그가 권투 글러브를 처음 끈 것은 고등학생이던 1964년. 처음엔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여수에서는 사범이 권투 가르치는 것을 구경하다 남성적인 매력에 빠져 잠시 배웠었다.

“1966년 부모 몰래 서울로 왔지요. 권투를 하고 싶었거든요. 쌀 한가마 판돈 2천800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한 것이지요.”

돈은 금방 떨어졌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 고물장수, 구두닦이 등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체육관에 운동하며 권투를 배웠다. 그러나 68년 프로로 전향했으며 군 입대 후에도 윤필용 당시 수경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권투를 계속할 수 있었다. 71년 동양챔피언에 올랐고 바로 세계챔피언 도전

약력

- ▲ 1946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출생
- ▲ 고흥중·고 졸업
- ▲ 1971년 7월 미들급 동양챔피언
- ▲ 1975년 6월 주니어미들급 세계챔피언
- ▲ 1979년 8월 은퇴(56전 51승(29KO)2무3패)
- ▲ 현재 태양권투체육관 운영

나 한국권투위원회에서 세계타이틀전을 주선해 주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임재근(당시 동양주니어미들급 웹피언)과 동양미들급 웹피언인 나에게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세계챔피언 도전권을 주기로 하고 경기를 해서 7회 KO로 이겼는데도 도전권은 임재근에게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인천에서 벌어진 세계타이틀전에서 졌다.

물론 이후로도 그에게는 세계 도전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79년 8월 56전 51승(29KO)2무3패의 기록으로 11년의 화려했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21차례 동양타이틀을 방어기록은 아직도 살아있다. 은퇴하면서 타이틀을 반납했다.

“DJ선생에 인사 갔다는 이유로

권투위, 타이틀전 주선도 안해”

의지를 밝혔으나 와지마의 거부로 시합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75년에야 지명으로 도전권을 따냈다.

그해 6월, 당시 27세의 유씨는 와지마 고이치를 7회KO로 눕히고 한국의 두번째 세계챔피언(주니어 미들급)이 됐다. 김기수 이후 7년만의 세계챔피언 탄생일 뿐 아니라 일본 선수를 상대로, 그것도 적자에서 이긴 경기였기에 국민의 감격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유씨는 1차 방어전에서도 일본의 마사코 마사히로를 6회 KO로 물리쳤다.

그러나 그는 2차 방어전에서 패배했고 3년 후 은퇴했다. 유씨는 79년 은퇴경기 후 후진 양식에 힘써 왔다. 침체된 프로복싱을 살펴보겠다는 의지에서였다. 그 결과 84년 IBF(국제복싱연맹) 웹피언에 오른 장태일을 비롯해 곽정호 차남훈, 장영순 정선웅 등 동양챔피언을 길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시대까지 전라도에 포함돼 고려말부터 특용작물 인삼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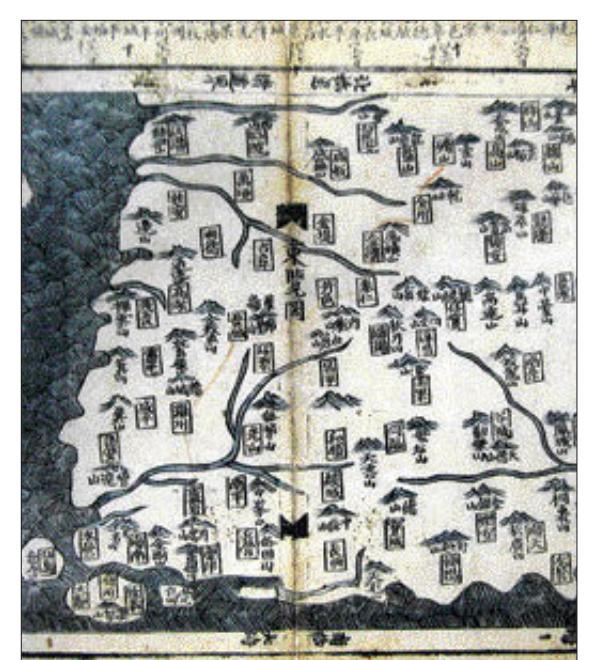
금산은 개성과 더불어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백두대간 장수 영취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진안 마이산과 주화산을 거쳐 계룡산으로 뻗어가는 금남정맥에 안겨 있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904m)과 도립공원인 대둔산(878m)이 솟아있고, 평균 고도는 250m나 된다. 고려 때 이규보는 “산이 금하 높아서 들어갈수록 점점 그을하고 길다”고 했다.

금산은 조선시대까지 전라도에 속하는 두메산골이었다. 1914년 금강 상류인 봉황천 유역인 금산(錦山)군과 서쪽 유등천변 진산(珍山)군이 통합됐다. 금산의 옛 이름은 진내(進禮)였고, 진산은 진동(珍洞)으로 산과 강이 감아 도는 뜻을 담고 있다. 두고을은 조선 초에 현재 쓰는 지명으로 정해졌다.

금산읍내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금성면 의총리 경양산자락에 이르면 1963년 사적 105호로 지정된 조현 칠백의총이 있다. 바로 남쪽 양전리에는 고령명 순절비가 서 있다.

금산군의 면(面)으로

전락한 진산은 이성계의 태실이 있어 금산보다 그 위상이 높았다. 대둔산을 중심으로 읍지가 자리했고, 북동쪽 만인산 아래에 이태조의 태실이 묻혀있다. 답사를 안내한 권선정 박사에게 듣는다.



16세기 동남도에 전라도 땅으로 표기된 금산과 진산.

인삼이 금산의 특용작물로 등장한 것은 고려 말로 추정되나, 1500년 전 진악산 관음굴 강씨가 심었다는 얘기도 전한다.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가 군의 바로 북쪽 대전으로 통하고, 1923년 인삼조합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인삼 동네로 소문났고, 광복 직후에는 전국 거래량의 약 8할을 점유하기도 했다. 연작이 어려운 인삼 특성상 재배지는 자연히 진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지만, 인삼골로 금산의 지위는 여전하다.

금산군청 인삼약초과 유통정보계 박승진은 전한다. 전국 인삼재배면적 1만4천ha 중 금산군은 918ha지만, 지난해 기준 금산 5일 시장에서 장날 하루 거래되는 약초 포함 인삼거래 규모는 200여t 70억원 정도이다. 연간은 주요 재배농가 325호와 1296개 업소에서 거래량은 수삼 1만2천t, 백삼 1천200여t으로 5천400억원 가량이다.

1981년부터 인삼축제를 이어왔고, 금년에는 읍내 신대리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인삼약초시장의 17만여 평의 행사장에서 9월 22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열었다. 주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66만명, 21개국 1백명의 바이어가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금산군을 관통하는 대전~통영간 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대전의 위성도시와 근교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어죽요리집이 많은 금강변 제원면 저곡리 닭실을 찾았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金鷄抱卵)형에 해평길씨 아은재(1353~1419)의 부인 평신길씨 묘가 있다. 회관 앞 마을 유래비에 ‘1963년 1월 1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

Upgrade 세기보정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정기